



## “소변 잦거나 체중 감소한다면 당뇨병 의심”



### 내분비질환 ② 당뇨병

소형견·5-8세·암컷 발생 높아  
완치보다는 관리 목표 치료해야  
고섬유질 식사·규칙적 운동

지난번 부신피질기능항진증에 이어 가장 흔히 발병하는 개의 내분비질환인 당뇨병에 대해 알아본다.

당뇨병은 포도당이 소변으로 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병명이다. 이 질병은 절대적 혹은 상대적 인슐린 결핍으로 발생한다. 인슐린 결핍이나 기능부전에 기인한 탄수화물 불내성이 당뇨병의 주된 특징이다.

개에서 발생하는 당뇨병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가능한 원인에는 유전성, 췌장의 손상, 인슐린 길항작용에 의한 베타세포(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세포)의 파괴, 표적조직의 감수성 결여, 인슐린 호르몬 생성의 이상이 포함된다. 이중 알려진 가장 흔한 원인은 췌장염이다. 당뇨병이 있는 개의 최대 1/3이 급성이나 만성 췌장염의 병변을 가지고 있다.

개의 당뇨병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과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그리고 부신피질기능항진증, 말단비대증에 이차적으로 발생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당뇨병이나 약물로 기인한 당뇨병이 있다.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환견들은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으로 절대적인 인슐린 결핍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슐린을 투여해야 한다.

개 당뇨병의 주요증상으로는 다뇨증, 다음다갈증, 체중감소가 가장 흔한 증상이다. 때로 배내장과 시각의 이상으로 내원했다가 당뇨병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당뇨병이 있는 개의 10~20%에서 간비대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당뇨병이 있는 개는 전신고혈압에 대한 위험성이 정상인 개보다 훨씬 높다. 세균성 및 효모성 피부염과 외이염도 당뇨병이 있는 개에게서 더 흔하게 발생한다.

당뇨병은 소형견, 특히 닥스훈트, 푸들, 스코티시 테리어, 사모에드, 킴살스파니엘, 로트와일러 등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모든 품종에서 발생하며 발생 연령은 대체로 5세에서 8세이다. 암컷이 수컷에 비해 발생빈도가 2배에서 4배정도 더 높다.

당뇨병의 진단은 여러 검사를 통해 이뤄진다. 전체혈구계산(CBC), 혈청생화학검사, 소변검사, 소변배양검사 등이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 합병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효율적인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당뇨병은 반복된 절식 후 혈당수치가 140mg/dl을 초과하거나 절식 혹은 식후 혈당수치가 200mg/dl을 초과한다면 분명한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

개 당뇨병, 대부분인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은 완치보다는 관리를 목표로 진행한다. 임상증상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고 당뇨병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정상혈당을 유지하고 저혈당을 피하는 것이다.

고섬유질 식사는 식후에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인슐린의 필요량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의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단순 탄수화물이 높은 식사, 특히 반습식 식이를 피해야 한다. 동물병원에는 당뇨를 앓고 있는 개를 위한 각종 처방식 사료가 준비돼 있다.

운동은 골격근으로 인슐린을 더 많이 운반하고 골격근이 포도당을 더 많이 이용하게 해서 혈당을 떨어뜨린다. 격렬하고 지속적인 운동은 혈당을 빠르게 극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격렬한 운동을 계획할 때는 정상적인 운동전 인슐린 용량의 25~50%를 감량해서 투여하는 것이 추천되며 저혈당증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포도당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모든 질병이 그렇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개 당뇨병은 유전적 영향이 커서 예방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고 근육의 손실을 방지한다. 면 예방 또는 당뇨병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강성진  
가람동물병원장

### 영화觀

## 다시 만날 세계

좋은 책을 읽으면 선물하고 싶어진다. 책 선물은 어렵다는 말이 많지만 가끔은 그 모험에 확신이 들 때가 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 어쩌면 우리는 그 마음 덕에 세상을 좀 더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어린이라는 세계’를 열 권 넘게 선물했다. ‘어린이라는 세계’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작은 친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침착하고 다정한 책이다. 어린이라는 조밀하고 너른 세계의 가이드에 가까운 이 책은 모르는 꽃과 나무의 이름을 알려주듯 천천히 그 세계의 면면을 들여다보고 호명한다. 어린이 독서 교실 선생님이기도 한 김소영 작가는 친절하고 명료한 도슨트가 되어 세계의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친구들의 크고 작은 조각들을 소개하는데 이 조각들은 모두 다르게 반짝이고 또한 제각각 원하는 모양으로 어우러져 있다.

김현탁 감독의 영화 ‘아이’를 봤다. 수식 없는 간결한 제목의 영화인데 안고 있는 이야기는 단순하지 않았다. ‘아이’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두 여성이 친구가 우정의 이야기이자 타인이 가족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의 모양이기도 했다. 이십 대 초반의 아영은 보호종료 청년이다. 그녀는 대학의 아동학과에서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를 먹여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아르바이트를 한다. 삼십 대 초반의 영체는 6개월 된 아들 혁이의 싱글맘이자 서툰 엄마다. 그녀는 술집에서 일하며 아이를 키우기 위해 애쓰지만 아이도 일도 조금도 쉽지가 않다.

아영과 영체에게 세상은 친절하지 않다. 그래서 둘 또한 서로에게 친절하기가 쉽지 않다. 내 뒤통의 상황이 버거운 아영과 영체가 우연히 서로에게 손을 내밀게 되는 것은 둘 사이에 놓인 아이 혁이 때문이다.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던 아이 아영은 영체의 아이 혁이의 배아비서티가 된다. 아영이 스스로를 먹여 살리기 위해 시작한 일인데 일이 일로 끝나 지지가 않는다. 아이 혁이의 너머로 자신과 닮은 영체가 아영의 눈에 들어오고 마음



영화 ‘아이’.

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영체 또한 마찬가지다. 자신의 아이를 돌보는 아영에게 맘이 쓰인다. 하지만 고단한 삶을 이어나가는 두 여성 아영과 영체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틈조차 없다. 그들에게는 하루가 고장 나는 중인 세탁기처럼, 쉬이 지워지지 않는 슬 냐새처럼 존재한다. 매일이 고장이고 매일이 고역이다. 그 와중에 돌봄이라는 노동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생후 6개월의 아이를 돌보는 매일의 일상 이라니.

영화 ‘아이’는 여성 노동자, 돌봄 노동, 보호종료 아동, 여성 간의 연대 같은 사회면의 키워드를 지나치지 않는 영화다. 빨리 들여다 보고 끊임없이 스크립을 시도한다. 왜 그런가요. 어디가 아픈가요.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아영과 영체는 동년배도 아니고 취향도, 말투도 삶의 방식도 모두 다르지만 마침내 손을 잡고 어깨를 맞댄다. 타인에게 시간을 허락하고 서두르지 않고 다음을 기다리는 일을 우리는 ‘서로를 돌본다’라고 할 것이다. 타인의 세계를 돌보는 일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가장 안전한 장치가 될 것이라고 영화는 말한다.

‘아이’의 마지막 장면은 태양이 먼지를 비추는 세상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아영과 영체 그리고 혁이의 뒷모습을 비춘다. 이들의 상황이 크게 나아진 것이 아닌데 이상하게도 조금도 쓸쓸하지 않았다. 아영과 영체, 혁이가 걸어가는 길목마다 선물처럼 희망이 놓여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들이 다시 만날 세계를 응원하고 싶어졌다. 부디 스스로의 반짝이는 그대로를 잃지 않기를, 타인의 곁에서 세상과 어우러지기를 말이다.

<진영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

불기 2565 (2021)년  
Buddha's Birthday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

연등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축하하고  
코로나 19 종식을 기원하는 봉축대법회!

불기 2565 (2021) 5. 15 (토) 탐동광장

※ 행사 참석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식전행사 \_ 오후 5시    봉축대법회 \_ 오후 7시

주최 \_ 제주불교연합회    주관 \_ 제주불교연합연등축제위원회  
 후원 \_ 제주특별자치도, 각 언론사, 각 사암, 제주도내 불교대학 및 신행단체

제주불교연합연등축제위원회